

교회 목표

신랄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죽음에 관한 고찰 3

유대교가 주장하는 죽음과 자연적이며 종교적인 인본주의

히브리 성경에서 죽음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포악한 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소망으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함,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신실하신 분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잘 나타나 있다(창 12:2-3, 13:16, 15:5). 히브리 성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죽음에 관한 견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불가피한 것이며 모든 인간의 삶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이다(창 2:17).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며 동시에 그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연락을 지속시키신다(시 16:10, 116:15). 죽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개념은 음부, 곧 죽은 자들이 있을 곳이다. 음부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둡고, 사망 이하의 어떤 상태로 보이는 것으로 이곳에 처하는 자들은 어두움에 거하는 자로 불린다. 이것은 아들을 귀신이나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인간성이 없는 존재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인간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모든 것이 서로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떼어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 살 수 없는 '하나의 연합된 인간성'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은 단조로운 하계에 그저 존재하는 희미한 존재들로 여겨졌다. 그들은 인간 삶과 관계된, 힘이 없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그저 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성경에도 있다(시 115:17~18, 88:3~5; 욥 10:20~22).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의 소망은 죽지 않거나 음부를 피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과 음부는 모든 사람의 매일 매일의 삶에 있는 경험의 한 부분이었다(창 50:24; 왕상 2:2). 사망과 음부는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그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집회시(Sirach, 히브리 성경의 일부로 벤 시라의 아들 예수가 썼다)에 기록되어 있다.

주전 5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유대교 안에는 죽은 자와 음부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중의 어떤 사상은 유대인들이 처한 그들의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 시작되었다. 또 다른 것은 회람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 다른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회람 사상에 대응하여 유대교의 입장을 밝히 세우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지식을 이성화, 조직화시키는 회람 사상의 영향력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당면한는 외적인 재량과 더불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걸어온 내세에 관한 견해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고, 이에 부활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탈무드 안에서 이러한 부활 사상이 비교적 인정을 받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 유대인의 내세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번성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 사이에서는 경건한 개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여 영혼은 불멸하는 것으로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다.

자연적이며 종교적인 인본주의에서 주장하는 죽음은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가장 위대한 사망과 영원한 것은 인류 역사와 인간 사상에 기록되어 기억되는 것이다. 문예부흥 사상가들 중에는 회람의 인간 이원론에서 나온 인간 영혼의 불멸설과 비슷한 형태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간의 죽음은 불가피한 자연적 현상이나 각 개인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각 개인의 특성은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본질적인 것으로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죽음을 인간의 마지막으로 보았고 각 사람의 생각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불멸하는 것, 영원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견 또는 견해는 자연적인 인본주의와 종교적 인본주의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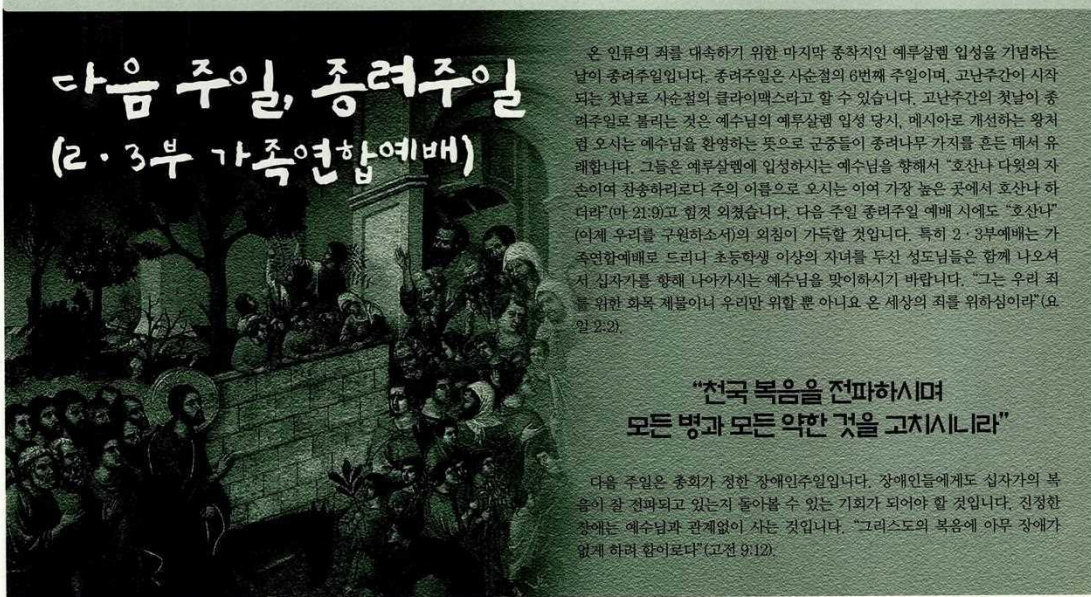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 곧 부득을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럽고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동요되지 않고 단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용감한 태도를 취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사실상 자신들의 죽음을 이렇게 단순한 불가피한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진다는 사실에 분노마저 느꼈다. 이들은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나는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신조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인본주의자들은 자연적과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인격, 공적이나 성공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었다. 따라서 추모식, 기념제, 기념탑들이 유행했고, 인류의 보존과 후손들에게 자신의 뜻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마지막이었다.

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 일성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사순절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전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 21:9)고 힘껏 외쳤습니다. 다음 주일 종려주일 예배 시에도 "호산나"(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외침이 가득할 것입니다. 특히 2·3부 예배에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려나 초동학생 이상의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함께 나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희곡 제물을 아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요 1:22).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음 주일은 종회가 정한 장제인주일입니다. 장제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장제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제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고전 9:12).

다음 주일, 종려주일
(2·3부 가족연합예배)



UNTO JERUSALEM

⁽²⁸⁾After He had said these things, He was going on ahead, going up to Jerusalem.

⁽²⁹⁾When He approached Bethphage and Bethany, near the mount that is called Olivet,

He sent two of the disciples ... ⁽⁴³⁾"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throw up a barricade against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⁴⁴⁾and they will level you to the ground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in you one stone up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your visitation." (Luke 19:28-44)

Before Jesus' last ministry visit to Jerusalem, He told His disciples the parable of the nobleman who went to a distant country to receive a kingdom for himself, and then return (Lk. 19:11-27). This meaningful parable was told to help the disciples prepare for what was ahead. The time had come for Jesus to go to Jerusalem as Messiah, the King of kings.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concerning His triumphal entry, which we now call Palm Sunday, were about to be fulfilled. Not only that, but His betrayal and trial were directly ahead. The cross and resurrection were also waiting for Him there. Jesus' final ministry journey unto Jerusalem was quite a significant event for the whole world. The reason why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to this earth was about to be revealed. Although the Old Testament also prophesized that the Messiah would be unwelcome in Jerusalem, God still loved the world and still to this very day continues to love and let His grace work on this earth. Let's look closely at why Jesus went unto Jerusalem.

Jesus ascended unto Jerusalem because it was time. Our Lord Jesus Christ is always on time. Even though it feels like sometimes He's running late, He's never too early or too late. During His earthly ministry He was quite aware of His time. He mentioned it to His brothers (Jn. 7:6) and His mother (Jn. 2:4). He prepared for His time, as today's Bible passage reveals as much when He told His disciples, "Go into the village ahead of you; there, as you enter, you will find a colt tied on which no one yet has ever sat; untie it and bring it here.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untying it?' you shall say, 'The Lord has need of it'" (Lk. 19:30-31). Sure enough, as the disciples were untying the colt its owners said to them,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Lk. 19:33) and the disciples answered, "The Lord has need of it" (Lk. 19:34). The colt was exactly where it was supposed to be and the owners' reaction was exactly as it was supposed to be. Such was and is God's great plan of redemption. His plan of salvation is right on schedule. The cross at Calvary was not God's afterthought; it was His forethought. Jesus came unto Jerusalem to die right on time.

Jesus ascended unto Jerusalem to fulfill the Scripture. Zechariah 9:9 says,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Shout in triumph, O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 you; He is just and endowed with salvation, humble, and mounted on a donkey, even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His triumphal entry unto Jerusalem was welcomed with shouts of praise as He rode an unbroken colt. One would think that the King of kings would

ride atop a beautiful horse or in a gem studded chariot, no one could imagine a donkey colt even though the Old Testament prophesied it. No one could imagine the King of kings being born by a virgin in a Bethlehem stable and wrapped in rags, but it happened (Mic. 5:2 ; Is. 7:14). No one could imagine the crowds that welcomed Him into Jerusalem would be the same crowds that screamed for Him to be crucified, but they did. Although the crowds thought God was causing Jesus to suffer for His own sins, the truth was that He suffered vicariously for theirs, "Surely our griefs He Himself bore, and our sorrows He carried; yet we ourselves esteemed Him stricken, smitten of God, and afflicted.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Is. 53:4-6). The Scripture guaranteed Him, just like Paul mentions,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 15:3-4). Jesus did exactly as the Bible mentioned.

Jesus ascended to Jerusalem to die for sinners. Today's Bible passage concludes, "When He approached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over it, saying, 'If y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 your eyes. 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throw up a barricade against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and they will level you to the ground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in you one stone up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your visitation'" (Lk. 19:41-44). The love of Jesus brought Him to this earth. The love of Jesus brought Him to Jerusalem. His arrival motivated His enemies and led Him to the cross. The greatest teachers and preachers of His day turned against Him, yet He still had compassion for those who wanted Him crucified. He wept over Jerusalem because they had missed their time. God's children were supposed to expect and be waiting for Messiah, but these people missed their special visitation time.

My dear friends, please do not miss your greatest opportunity. Today is Palm Sunday and Jesus' humble and lovely presence has come to this church. Please welcome Him and come to Him in faith while you still have time. Amen. ■

예루살렘을 향하여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 (43) 날이 이르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밧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둘 하나도 둘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28~44)



김성판 목사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에 갔다 온 어떤 귀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눅 19:11~27). 이 의미 있는 비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돕는 말씀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메시아의 영광스런 입성에 관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막 성취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신당함과 시련이 이제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거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여행은 온 세상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막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구약성경에서 예언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였고, 바로 오늘까지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향한 은총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키십니다. 때때로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으십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요 2:4, 7:6).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눅 19:30~31)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자신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눅 19:33)라고 물었고, 이에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눅 19:34)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귀 새끼는 정확하게 그곳에 있었고, 그 주인의 반응도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뒤늦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 사건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적시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언이 성취된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스가랴 9:9는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

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구약성경이 그것을 예언했는지라도 왕 중의 왕은 멋진 말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마차를 탈 것이라고 생각했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 중의 왕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나 강보에 싸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미 5:2 ; 사 7:14).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군중은 예수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4~6). 성경은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밧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둘 하나도 둘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눅 19:41~44).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도락은 그의 원수들을 자국했고 그를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교사들과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구호하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때문에 슬피 우신 것은 그들이 주어진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했던 이 사람들은 특별한 초대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스런 임재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특음

구원 받은 날(출애굽기 12:1-14)



하나님은 80년간 모세를 훈련시키신 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고 당신의 뜻을 전하셨다. 그러나 바로는 거절했고, 결국 애굽에는 끔찍한 재앙이 내렸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바로 그 우상으로 인하여 아홉 번에 걸쳐 재앙을 받았다.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고,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예고되었다.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구원 받은 날을 기술하였다. 이스라엘이 구원 받은 날, 곧 유월절이다.

● 달의 시작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이 되었다(출 12:1-2).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달력은 필요 없게 되었다.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유월절인 것이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골 2:8-9).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요 3:3-5). 도저히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죄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희로케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새로 태어난다.

●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의 첫 달이 유월절임을 선포하신 뒤에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령하셨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출 12:5-7). 이 명령의 초점은 어린 양의 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공적이 아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 양의 피였던 것이다(벧전 1:18-19; 히 7:26).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뿐이다(요 1:29).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종말에 모든 피조물은 어린 양 앞에 열드러 경배하게 될 것이다(계 5:8, 7:9).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10).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모든 자를 생생수 생수로 인도하실 것이다(계 7:17). 결국 이들 모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계 19:7,9).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어린 양의 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믿기 보다는, 더욱 강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오직 진실로 겸손한 자만이 환한 빛을 내는 등불 같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계 21:9,23). 구원의 표적은 오직 어린 양의 피다(출 12:13).

● 어린 양을 먹어야 한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는 어린 양을 먹어야 한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출 12:8-11).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어린 양의 고기는 우리의 건강을 위함이다. 천국을 향해 열린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영양분은 어린 양을 통해서만 공급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다. 자신들이 구원 받은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 다른 나라의 절기로 치부하며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구원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는 달의 시작이기에,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 받은 날과 연결된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갈 수 있는 것이다. 구원 받은 날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고 완성된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메시아의 특음 73

누가 넘겨주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 받았음을 사도전경을 통해 항상 고백한다. 물론 최종 결정은 빌라도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고 싶어 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넘겨준 주모자, 하수인은 누구인가? 가장 먼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귀다. “마귀가 벌써 사탄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라”(요 13:2). 또 한편으로는 당시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가이바가 예수님을 믿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한다는 명분이었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손상된 자신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가이바에게 있었기 때문이다(요 11:49-50). 또 다른 견해로는 과거 히스기야를 시험(대하 32:3)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겼던 문제는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지만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피하지 않고 모든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수동적 설명과 모든 것을 아셨기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다는 능동적 설명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막 9:31)와 “제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취라 그런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나니라”(막 14:41)는 수동적 설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말씀이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셨던 예수님은 때가 왔을 때 거부하지 않고서도 죄인의 손에 팔림을 당하신 것이다. 바울도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넘김을 당했음을 “내줄이 되고”(롬 4:25), “내주신 이”(롬 8:32), “잡히시

던”(고전 11:23)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언급하였다. 바울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가롯 유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강조한 것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다(사 53:10).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수동적이지만은 않았으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막 14:42, cf. 마 26:46)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능동적인 태도로 나아가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모습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기술하였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나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 10:17-18).

예수님을 넘긴 사람은 누구인가? 마귀, 대제사장 가이바, 가롯 유다, 빌라도인가? 이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가? 절대로 아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수동적이며 능동적인 두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다. 이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단지, 믿음으로 순종하셨을 뿐이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남보다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도로 표시도 없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고

내가 가고자 함도 아니요 누가 가라 함도 아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
곳에 도착했다. 현지 지도를 구입하긴 했으나 도로 표시도 없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곳으로 향했다. 사역이 시작됐지만 이미 알고 왔던 이 나라의 정보와는 많이
달랐다. 운전기사의 말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재대로 일지 않고 사냥으
로 생활하던 부족이라 했다. 복음을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비하신 영혼들이 아닌가! 성령의 역사가 이뤄짐을 느낀다.

주영선(임사, 14교구)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벽차오르는 기쁨

여러 해 동안 복음의 말씀이 강단 위에서 흘러나를 때마다 내 마음 한 켠에서
솟아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작은 고백이 흘
러나왔다. 믿지 않는 시대와 전쟁, 아직은 어린 자녀들의 양육, 멀리 지방 근무 중
인 남편은 내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주님 주신 귀한 십자가가 되었다. 이
번 선교지에 주님의 제자 된 우리 팀원들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깨어서 선
교지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귀한 영혼들
을 만났다. 열매와 열이 아파 누워 있는 안락가운 가정에, 연로하신 할머니와 추
수하는 여인에게, 한낮의 대나무 수종업자 가정의 점심 식탁으로, 굳게 닫힌 대문
안의 주님 없는 가정에도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
고자 하는 여러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었다.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자들을 위해 연
약한 우리를 들어 쓰신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벽차오르
는 기쁨을 누를 길이 없었다.

지정민(임사, 24교구)

일흔아홉 살의 마지막 단기선교

올해 나이 일흔아홉 살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마지막 단기선교 사역이 될지
도 모를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현장에서 활동은 못했지만 생명을 다하는 날
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될 것이란 소망을 더 한층 높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선교사역이 마지막 선교가 될지라도 주님,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정봉순(임사, 17교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팀장님을 비롯해 팀원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활기찬 복음전도를 행함
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정성껏 전도언어와 필수언어를 사용해 십자가 복음사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복음을 잘 받아주지 않아 답답하고 부끄러운 나 자신이 너무나
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순간순간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양들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
든 것이 낯설고 속삭이 불편했지만 우리는 배운대로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
하는 자의 자세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행하고 만족하며 주님이 주신 것에 순간
순간 뜨거우 사람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에 충실히 일했습니다. 처
음 선교를 경험한 나는 크나 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체험하며 주 믿는
자로서 이번 사역을 계기로 더욱더 성숙된 자세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팀
장님을 비롯하여 팀원들의 용기와 경험에서 믿음의 길을 배웠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심을 가슴 뭉클하게 느꼈습니다.

백정선(임사, 1교구)

정말! 맞아!

처음, 팀장님으로부터 선교 제의를 받았을 때 당연히 가겠다고 했다. 전도도
됐지, 직장도 그만 두었지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열매 행사처럼
가볍게 생각했다. 열성훈련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다. 낙심하게
되었고 여러 번 포기하고도 싶었다. 그러나 선교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음과 맡기는 법을
알게 되었다. 교회에서 수많은 자기가 부인을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내가 하는 줄 착
각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어렵다던 선교는 이제까지의 선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교가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매주 금요찬양집회
시 선교포개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하던 의심이 "정말! 맞아!"로 변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

차봉순(임사, 8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4일(목)~4월 21일(목)	청년1부 2팀	유정옥

내 안에 있는 가롯 유다

가롯 유다, 그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관 사람, 자살한 사람, 죄인, 그렇다면 내 삶의 가롯 유다의 모습은? 너무나 허다한 죄의 모습 때문일까? 죄인이 죄 짐을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일까? 죄인에게서 죄의 모습을 찾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 것일까? 그래서 난 성경에 꼭 가롯 유다가 등장해야 했던 이유를 찾기 위해 사람들과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나눠보았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요악의 존재, 욕심에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줄 모르는 장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모습, 그렇다 많은 죄인 중의 가롯 유다는 이러한 자였다.

그렇다면 내 삶의 가롯 유다는 모습은? 성경 안의 가롯 유다는 그냥 실심팔이로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그냥 있었던 것으로 묵상하고 싶진 않았다. 간단한 질문 앞에 무엇을 알고 싶었는지 이런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였지만 구원 역사의 진리를 증명할 죄인 중의 괴수,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끌개지 믿지 못하고 결국 제 갈 길로 가다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만 그는 그렇게 가까에서 그분의 성품과 일하심을 목격하고도 몇 품의 돈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

그렇게 묵상하던 중 지금의 선교훈련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가롯 유다의 모습을 절로 관찰하게 되었다. 작년 11월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오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 훈련의 시간이 너무 귀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던 중 선교라는 부르심 가운데 나의 위로자는 오직 주님만을 고백했던 시간들, 그런데 이전 그 은혜조차 나의 욕심으로 변질되었을까? 올해도 소망함으로 결단한 선교훈련이 너무도 고되다.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는다는 것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도망갈까를 수십 번 도 더 고민하고 있었다. 잘하면 내가 잘 한 거고 아니면 아쩔 이렇게까지 주님을 원망할 수 있는지.

눈앞에 담장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인 거지 그분에게 침 뱉고 욕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내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가롯 유다와 뭐가 다를까? 이처럼 죄성이 발견될 땐 부끄러워 더 숨기고만 싶어지는 나의 죄 된 습성. 그러나 우린 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살 길임을 가롯 유다를 통해 깨닫는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의 생명은 거기서 끝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결국 피발에 버리고 마는 것일 뿐이다. 아버지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림의 그대를 기다리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린 아직 숨쉬고 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통해 알하신다고 하신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믿는 자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방법도 없구나! 오직 믿음여! 믿음 앞에 날마다 죄인 중의 괴수인 나.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잘한 것을 내밀고 싶으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음이 오는 나에게 인한 은혜임을 잊지 말자!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이 정답이다.

(이은정(영남1부))

임성묵 형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낮에 짧은 시간 동안 임성묵 형제와 간단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성묵 형제는 사랑부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는 '차페성 장에'라는 불평함을 안고 사는 형제입니다. 사랑부에서 만난 임성묵 형제의 모습은 여느 중학생과 같이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하며, 장난기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래를 가졌음에도 트럼펫을 잘 연주한다는 것이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3년 정도 되었다는 트럼펫 연주

실력은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성묵 형제의 밝게 웃는 모습 속에서 코신 하나님과 사랑과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성묵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그는 단 한마디 "십자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기도, 그리고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현재 아버지, 어머니, 형 이렇게 네 식구가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고 앞으로 임성묵 형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코신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찬양 전도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만나 이야기 하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삼각축이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중언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7일 찬양예배에 은메로온 사랑부의 특송이 있으니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하·정경모 기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많은 사람들이 내렸습다. 내 눈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는 어느 정류장에 멈춰 섰고, 계절과 맞지 않는 옷과 뿌연 안경을 쓴 어떤 동통한 아저씨 한 분이 타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의 말에 대꾸하기를 꺼렸습니다. 또 또한 마친가졌습니다. '왜 하필 내 뒷자리에 앉으신 거야, 여기 앉지 말라.'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 앉은 그 아저씨가 내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 아저씨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는 말뿐 아무 말도 한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나의 눈이 범벅됐던 것입니다. 내 눈에, 내 생각이 너무나 더러워서 그 아저씨를 더러운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모를 바라보며 내 뒷자리로 판단하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려면 어떻게 하겠을까? 나와 같으니까?" 그 일이 있는 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을까?"라고.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한영애(집사, 7교구))

새가족양육부
수문자

하루 간단한 것이었죠!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뒤 교회를 다니고 싶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교회로 어느 일요일 뜰뚝뚝 걸어왔어요. 전도해 준 분을 통해 제가 왜 죄 안에 사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건 우리 인간의 기준인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듯, 저 역시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했죠. 그랬더니 답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미 제 죄 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죄 값 치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냐고 물더라고요. 그럴 그 왜 안 믿어지냐고, 성경 말씀 다 믿어진다고 말했죠.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들은 부분은 다 믿어진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종종 "노라를 사실이다. 노라를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저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인도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저와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죠. 남편도 순천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교회를 싫어하던 남편이 이제는 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예전에 잠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성이 군자 정도만 생각한 것이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자가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개체인 것 같아요.

죄에 대하여 우리 부부는 예전보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작전 3년 전에는 죄이기에 부부 간에 서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가 교회에 다닌 후 남편과 변치 않는 진리를 공동적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기쁩니다. 생활이 달라진 점은 없지만 가치관은 많이 변했습니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점이 항상 머릿속에 있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점이 달라졌어요. 물질적인 것에 연연해 하며 스트레스를 받던 과거의 가치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요즘의 가치관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김려영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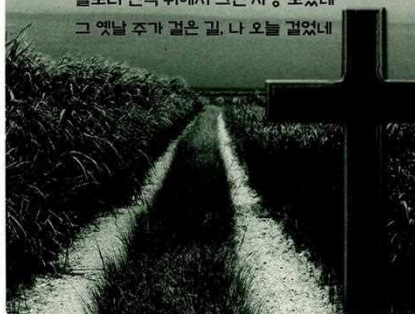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거룩한 길 따라
나 오늘 다시 걸으며 주 모습 그랬네
그 정다운 들과 언덕 변함 없는 미풍
그 옛날 주가 걸은 길 나 오늘 걸었네

오 베들레헴 향하는 아름다운 저 길
어리신 주가 뉘돌던 저 갈릴리 언덕
큰 무리들을 복주시ن 감람산을 지나,
물결이 설레이는 요단강을 보았네

만백성 죄를 위하여 홀로 기도하신
갯새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 떨렸네!
영 죽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갈보리 언덕 위에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크신 사랑 보았네
그 옛날 주가 걸은 길, 나 오늘 걸었네



사순절을 읽자 (5)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주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주일로, 부활절 전 주일이며, 수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다. 예수가 무혈입성하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이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퍼서 "오 신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성을 지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이다(요 12:13; 계 7:9). 그래서 4세기 중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하는 특별한 의식을 해왔다.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로 축복의 나무가 되고 있으며, 중세에 와서는 이 행진이 안 교회에까지 가는 풍습이 되었는데, 종려나무를 축복하고 분배해 주면서 교리로 나아갔다. 또한 이 행진 때는 종종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복음서나 십자가, 또는 나무로 만든 나무 위에 그리스도가 올라앉은 모습을 만들어 행진에 사용했다. 중세 초엽에는 종려나무가 예배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911	강창자	양육반	1 박철순	1937	이경애	양육반	15 김진자
1912	김은주	초등1부	1 유영순	1938	고은경		17 이지수
1913	박민준	양육반	1 정남규	1939	신계영		17 유영순
1914	장진진	양육반	1 강신순	1940	이성희		17 이지수
1915	곽태환	유치부	2 최준환	1941	조길환	양육반	17 조동일
1916	김경희	양육반	2 최준환	1942	하은숙	양육반	17 진옥순
1917	배은진	2 최준환	2 최준환	1943	박지혜	양육반	18 허종숙
1918	유성호	2 최준환	2 최준환	1944	김병찬	양육반	18 정희숙
1919	유은주	영아부	2 최준환	1945	김정미	양육반	19 이종자
1920	이예스	중등반	3 이이예	1946	김정미	중등반	19 이종자
1921	황유진	양육반	3 이이예	1947	유지은		20 이경옥
1922	송상아	양육반	5 차영진	1948	이민주	유치부	9 김연숙
1923	임하나	초년1부	6 안유리	1949	한현주	양육반	20 한연숙
1924	김희재	양육반	6 문미진	1950	홍순진	양육반	20 홍순혁
1925	김현서	대학부	9 홍순길	1951	김수빈	초등2부	21 이주은
1926	이윤주	유아부	9 김재순	1952	오수민	초등2부	21 이주은
1927	이정화	양육반	9 김진숙	1953	이호선	초등2부	21 손동현
1928	장우성	대학부	10 허동우	1954	이원영	양육반	21 황순환
1929	심현정	양육반	11 국숙단	1955	유진희		21 김민정
1930	최혜미	양육반	11 김진숙	1956	김나현		22 최미자
1931	고영준	양육반	12	1957	김선영	초년1부	22 황은영
1932	박기진	양육반	12 김미애	1958	박미경	초년1부	22 박성영
1933	윤진정	양육반	12 김희자	1959	김현진	중등반	22 장민정
1934	전지아	양육반	13 김희자	1960	김성준	양육반	22 최형록
1935	이경호	양육반	13 이유미	1961	신하민	영아부	5
1936	이수형	중등반	13 강석화	1962	정하람	영아부	12

교회소식

- 별 전**
- 1. 박석은 은혜침사(11교구 상계구4) / 3월 31일 별세, 나이 27세
 - 2. 최정현 성도(이영국 성도의 모친, 이영주 권사의 시모, 14교구 상동구4) / 4월 1일 별세, 나이 41세
 - 3. 오영선 은혜침사(오승훈 전도사의 부인, 4교구 개로구4) / 4월 1일 별세, 나이 42세
 - 4. 이광복 대교침사(김복순 집사의 모친, 이광순 권사의 시모, 14교구 부기계구4) / 4월 4일 별세, 나이 77세
 - 5. 마성현 대교침사(박희자 집사의 모친, 유정삼 권사의 시모, 9교구 서양구4) / 4월 5일 별세, 나이 77세

- 결혼**
- 1. 장석진 군(강정호 성도 - 이광원 성도의 아들, 타고교) 이광주 장녀와 결혼, 김사 - 박연희 권사의 딸, 16교구 / 11월 18일 18:30, 그랜드바사티호텔 그랜드홀
 - 2. 이진환 군(최병호 권사의 아들, 23교구)과 장혜은 장녀와 결혼, 이광순 집사의 딸, 타고교 / 12월 18일 16:00, 베르나 아나바다리 리조트
 - 3. 안영진 군(강정호 성도의 아들, 9교구)과 김진희 양(김종남 성도 - 안옥서 성도의 딸, 타고교) / 10월 13일 18:30, 충무로길 갤러리

충원복지자 직원 모집

1. 2011년 4월 10일

1. 2011년 4월 10일

2. 2011년 4월 10일

3. 2011년 4월 10일

4. 2011년 4월 10일

집사의 찬양예배	일시: 매주일 15:20~16:00(월 22일/7차) 대상: 안수자 전원	장소: 제2교육관 507호
권사의 원전수련회	일시: 12월 18일 9:20 분당 일출빌	장소: 충원1도원
총목 교회원 전도	일시: 여전도회 13월 1일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16월 1일 14:00 장소: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3:5 지리: 307호 2:4:6:8지리: 407호	
고통부 올림데이(총동원 전도주일)	일시: 매주일 10:00 장소: 제2교육관 4층	
장년부 초경 전도집회	일시: 17월 18일 주일 12:30	장소: 복지관 지하8층
16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시: 24월 2주일 14:00	장소: 복지관 지하8층
전도부 3·4시와 주력기도회	일시: 10월 18일 16:00	대상: 7~12교구
신교인회 훈련	일시: 매주일 15:00 장소: 제2교육관 405호(4층) 410호(5층) 415호(5층) 504호(5층) 505호(5층) 506호(5층) 509호(5층) 510호(5층)	

2011년도 제2차 학습 및 세례식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세례자	장소	유세례자	장소
4월 10일 (토)	12:30 15:00~15:50	기독교 (김정호 성도)	교육관 309호	세례(전도)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교육관 309호
4월 17일 (토)	12:30 15:00~15:50	기독교 (정지현 성도)	교육관 309호	세례(전도)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교육관 309호
4월 24일 (토)	12:30 15:00~15:50	기독교 (정지현 성도)	교육관 309호	세례(전도)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교육관 309호
4월 24일 (토)	16:00~16:40	분당	분당	분당	분당	분당	분당	분당	분당
4월 24일 (토)	16:00~16:40	분당	분당	분당	분당	분당	분당	분당	분당

사순절 특별세례기도회 (4/11~4/17)						
날짜	시간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세례자	장소
4/11 (토)	12:30 15:00~15:50	기독교 (김정호 성도)	교육관 309호	세례(전도)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4/12 (토)	12:30 15:00~15:50	기독교 (정지현 성도)	교육관 309호	세례(전도)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4/13 (토)	12:30 15:00~15:50	기독교 (정지현 성도)	교육관 309호	세례(전도)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4/14 (토)	12:30 15:00~15:50	기독교 (정지현 성도)	교육관 309호	세례(전도)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4/15 (토)	12:30 15:00~15:50	기독교 (정지현 성도)	교육관 309호	세례(전도)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4/16 (토)	12:30 15:00~15:50	기독교 (정지현 성도)	교육관 309호	세례(전도)	교육관 309호	유세례자

예배 담당 (4/13~4/17)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찬양
4/13	주요 I 주요 II	심자가 주위의 긍중들(마 27:35-42) 김성관 목사	이광원	장정호	아바 아버지여(호산나 찬양대 - 오제스트라)	김정호
4/14	주요 III 주요 IV	구원을 받을 만만 한 하나님의 이름(골 4:1-2) 나태민 목사	박준호	윤 회	갈보리산 위에(심로암 찬양대)	김정호
4/15	주요 V 주요 VI	예루살렘을 향하여(마 19:28-44) 박지훈 목사	김정호	배수현 찬양대 - 오제스트라 / 충원음악아카데미 드림팀 주중 / 소프라노 안성희	(예배 전 찬양)	김정호
4/16	주요 VII 주요 VIII	예루살렘을 향하여(마 19:28-44) 김성관 목사	이광원	김진국	종라나무 외 / 조동주 2부 오제스트라	김정호
4/17	주요 IX 주요 X	예루살렘을 향하여(마 19:28-44) 박지훈 목사	김정호	이광원	호산나 호산나 외 / 중동부 오제스트라	김정호
4/18	주요 XI 주요 XII	예루살렘을 향하여(마 19:28-44) 김성관 목사	이광원	김진국	호산나 호산나 외 / 아멘 여정중단	김정호
4/19	주요 XIII 주요 XIV	예루살렘을 향하여(마 19:28-44) 양계복 목사	강호성	안석현	내가 매일 기쁘게 외 / 예보 중단	김정호
4/20	주요 XV 주요 XVI	예루살렘을 향하여(마 19:28-44) 이희식 목사	장정호	임언주	에바다부 중장 / 사랑부 / 11교구	김정호

구 분		시 간
주일예배	I	오전 7:00
	II	오전 9:00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꽃헌화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금요일찬양회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별
주요예배	① 오전 9:40	본당 앞 앞밭
	② 오전 11:00	9:50 본당 앞, 10:20 아미성역
	③ 오전 9:50 본당 앞 앞밭	
	④ 오전 10:30	교양실로프 후 본당 앞 앞밭
주요찬양예배	① 오전 11:40 드리는 주일 본당 예배, 아침, 중점, 일요일 저녁	
	② 오전 1:40 드리는 주일 본당 예배는 2:40부터는 2:40부터는 주일	
	③ 주일 4:40부터 5:40부터는 주일 본당 예배는 2:40부터는 주일	
	④ 주일 5:40부터 6:40부터는 주일 본당 예배는 2:40부터는 주일	
Simultaneous translation in English and Korean (English and Korea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benezer O.C. World Service, and St. Lukes, Chinese, Mongolian, Russian, Cambodian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C. World Service,		

■ 시무자로		
강철형 김영환		

구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제1교육관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유 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초 등 1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초 등 2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중 등 부	오전 10:30	강 령 리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청 년 2부	오후 12:10	제2교육관	